

메시지 6

강화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 
우주적인 금등잔대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 
금등잔대들을 산출함

성경: 계 1:12, 20, 2:1, 4:5, 21:10, 18하, 23-24, 22:1, 5

- I. 신약 경륜은 금등잔대들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—계 1:12, 20, 21:2, 10-11, 16, 18하, 23.
- II.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는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영에 의해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시고 세계정세를 다스리심으로써,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다—행 5:31, 17:26-27, 요 17:2, 대하 16:9.
- III.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등불이신 일곱 영은 목표 없이 타오르지 않으신다. 일곱 영의 불탐에는 목적이 있는데,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해 금등잔대들, 곧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이다—계 4:5, 1:12, 20, 2:1.
- A.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로서,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기 위해 세계정세를 관리하신다—계 4:5.
1.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들과 관련해서 불타오르실 뿐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 세계정세에 관련해서도 불타오르신다. 불타는 일곱 영은 세계정세를 관리하실 뿐 아니라 교회들을 순수하게 하시어 금등잔대들을 산출하신다—계 1:11-12.
  2. 하나님은 일곱 등불, 곧 타오르시고 비추시고 심판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제련하시고 산출하시는 그분의 일곱 영에 의해 땅을 만지실 것이다. 세계정세 전체가 일곱 영의 타오르는 불길 아래 있다—계 4:5.
  3. 일곱 영은 불타오르시면서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며 제련하는 일을 하시어, 금등잔대들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신다—계 1:20.
- B. 일곱 등불이신 일곱 영의 타오름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일어나 행동을 취하게 한다—단 11:32하.
1.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성하기 위해 그분과 동역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강화되는 데 달려 있다—계 3:1, 4:5, 5:6.
  2.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. “사랑스런 신성한 불꽃이여, 오소서! 오셔서 심판하소서! 오셔서 정결하게 하소서! 오셔서 제련하시어 금등잔대를 산출하소서!” (하나님의 신약 경륜, 259-260쪽).
- IV. 금등잔대들인 교회들은 우주적인 금등잔대이자 모든 등잔대의 집대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—계 1:20, 21:18하, 23.
- A.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등잔대들의 궁극적인 완결이다—출 25:31-37, 왕상 7:49, 슥 4:2, 계 1:12, 20.
- B.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큰 표징, 곧 금등잔대들과 새 예루살렘의 표징이 있다—계 1:12, 20, 21:2, 10-11.
- C. 요한계시록은 등잔대들로 시작하여 등잔대로 끝난다—계 1:20, 21:18하, 23.
1. 요한계시록의 시작에는 일곱 등잔대, 이 시대에 있는 지방적인 등잔대들이 있다—계 2:1.
  2. 요한계시록의 끝에는 집합체이고 복합체인 한 등잔대, 우주적인 등잔대가 있다—계 21:18하, 23.
- D.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은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는 등이신 어린양을 받쳐 주는 우주적인 금

등잔대이다—계 21:18하, 23, 22:1, 5.

1. 새 예루살렘은 금으로 된 산이다—계 21:18하, 21하, 22:1.
  - a. 새 예루살렘이 금으로 된 성이고 열두 문에 이르는 한 길이 있으며 높이가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, 우리는 그 성 전체가 금으로 된 산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.
  - b.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(금)으로 구성된 궁극적이고 유일하며 영원한 금등잔대이다.
2.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양 안에서, 우주적인 금등잔대인 새 예루살렘의 꼭대기에서부터 빛을 비추신다—계 21:23, 22:1, 5.
  - a. 금으로 된 산의 꼭대기에는 중심인 보좌가 있고, 보좌에는 등이신 어린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성을 통하여 빛을 비추신다—계 21:23, 22:5.
  - b. 금으로 된 산은 대(臺)이고, 이 대 위에 등잔이 있다. 그러므로 금으로 된 산은 금등잔대이다.
- E. 모든 등잔대의 집대성, 오늘날의 등잔대들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은 완결된 우주적인 등잔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낸다—계 21:24.
- F. 우리는 금으로 된 산이 됨으로써 우주적인 금등잔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—계 21:16, 18하, 21하, 22:1.
  1. 성경에서 산은 부활과 승천을 상징한다.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산이 된다—엡 2:5-6.
  2.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본성에서 나온다.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된다—벧후 1:4.
  3. 금으로 된 성 전체가 투명하다.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서 투명해짐으로써 금으로 된 투명한 산이 된다—계 21:18하, 21하, 22:1.
  4.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은 유일하고 궁극적이며 영원한 금등잔대, 모든 등잔대의 집대성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금등잔대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의 일부가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된다—계 21:23, 1:12, 20.
- G. 금등잔대는 체현되시고 표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, 우리가 등대로 묘사된 삼일 하나님의 방면들, 곧 금과 구체적인 모양과 일곱 등잔을 더 체험할수록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인 금등잔대의 실재 안에 더욱 있게 되어 우주적인 금등잔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—출 25:31, 36-37, 계 1:12, 20, 21:18하.